

Table 7.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N<sub>2</sub>O 배출계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종류	배출계수 (kg N <sub>2</sub> O-N/kg N)
액비화시설(liquid system)	0.001
퇴비화시설(solid storage and drylot)	0.02
기타시설(other system)	0.005

출처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GIR, 2015)

Table 8.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이용 비율

분뇨처리시설		젖소	한·육우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
액비화 시설	2011	0.14	0.34	16.18	0.33	0.58	-
	2012	1.30	0.32	19.45	0.11	1.04	-
	2013	0.14	0.19	19.51	0.10	1.27	-
퇴비화 시설	2011	86.18	92.04	45.60	68.81	67.83	100.00
	2012	85.24	92.64	38.00	71.41	72.06	100.00
	2013	85.72	93.86	38.22	76.20	78.09	100.00
기타 시설	2011	13.68	7.62	38.22	30.87	31.59	-
	2012	13.46	7.04	42.56	28.48	26.90	-
	2013	14.14	5.95	42.27	23.70	20.64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1, 2012, 2013) * 기타 시설 : 정화처리, 기타자체처리, 위탁처리 포함 ** 기타 가축 : 염소, 사슴, 말, 면양(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이용비율 적용을 위한 기타 가축군 분류 이며, CRF 상의 기타 가축과는 다름 ***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출처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GIR, 2015)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축산부문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 처리 부문은 5.5 백만톤 CO<sub>2</sub>-eq. 였으며 농업의 총 배출량(20.7 백만톤 CO<sub>2</sub>-eq.) 대비 26.5%, 장내발효 부문은 4.4 백만톤 CO<sub>2</sub>-eq.이었고 농업의 총 배출량 대비 21.1%였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0.8 백만톤 CO<sub>2</sub>-eq.이었고 1996년과 1997년에 최대값인 22.7 백만톤 CO<sub>2</sub>-eq.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7 백만톤 CO<sub>2</sub>-eq.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종 부문의 감소를 축산부문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축산 부문 내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증가 속도가 장내발효의 그것에 비해 빠르는데 그 이유는 단위가축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연도별 자세한 배출량은 아래 Table 9에서 볼 수 있다.